



REVIEW 월드 아트마켓

SALON D'HONNEUR

NIVEAU I  
Allées F, G, H  
LEVEL I  
Alleys F, G, H

fiac! 0.A18  
Metro Pictures  
New York

# FIAC 2012

1  
2



## 2012 「피악」

10.18~10.21 | 그랑팔레 | Grand Palais

0.B35  
fiac!  
Max Hetzler  
Berlin

078 ART PRICE





1.2 그랑팔레 전시전경 FIAC 2012 ©Marc Damage 3 라민 헤리자데 (Untitled) Technique mixte sur toile 2012 Courtesy Galerie Nathalie Obadia, Paris/Brussels

진정한 컬렉터들의 스케줄에 빠질 수 없는 일정 중 하나가 바로 「피악(Foire Internationale d' Art Contemporain)」이다. 39번째 에디션을 맞이한 「피악」이 지난 10월 18일부터 4일 동안 경제 공황에 아랑곳없이 전 세계의 예술 애호가들을 파리로 이끌었다. 갤러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없는 공인된 아트페어 「피악」은 올해도 제니퍼 플레이(Jennifer Flay)를 포함한 엄격한 심사위원들의 기준을 통과한 갤러리만이 그들의 부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봉 랑베르(Yvon Lambert), 타테오스로팍(Thaddeus Ropac), 엠마뉴엘 페로틴(Emmanuel Perrotin), 다니엘 템플론(Daniel Templon), 래리 가고시안(Larry Gagosian), 화이트 큐브(White Cube), 폴라 쿠퍼(Paula Cooper), 마리언 굿맨(Marian Goodman) 등 전체 750개의 후보 갤러리 중 25개국의 182개의 갤러리가 선별되어 대중에게 국제적으로 입증된 작품을 선보였다. 그 중 프랑스에서는 62개의 갤러리가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가 참여했다.

올해 「피악」에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컬렉터들이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사진과 비디오 작품은 현저히 감소했고 회화 작품이 대부분이었으며 대부분이 추상 작품이거나 개념 예술이 주를 이루었다. 피카비아(Franci Picabia), 뒤 뷔페(Jean Dubuffet),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와 레제(Joseph Fernand Henri Leger)의 작품을 거쳐 피카소, 쿠프카(Frantisek Kupka), 키르히너(E.L. Kirchner)에 이르기까지 모던 아트 작품들과 함께 앤디 워홀(Andy

Warhol)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무라카미 타카시(Takashi Murakami), 토니 크랙(Tony Craig) 등 컨템포러리 작품들이 나란히 선보여 컬렉터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 키스 해링(Keith Haring), 피에르 솔라즈(Pierre Soulages), 사이 톰블리(Cy Twombly), 톰 웨슬만(Tom Wesselmann), 장 미셸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 위에 민준(Yue Minjun) 등은 경기불황속에서도 꾸준한 관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또한 하우스저 엔 위스 갤러리(Hauser&Wirth gallery) 부스에서 설치한 폴 메카시(Paul Mac Carthy)의 작품 〈쥘리 부시(Georges Bush)〉는 거대한 크기로 관람자들을 당황시키기도 하였다. 코가 잘린 부시(전 미국대통령)가 돼지를 뒤에서 덮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작품은 200만 달러(약 21억 원)에 판매되었다.

최근 들어 급부상중인 젊은 사진작가 로빈 로드(Robin Rhode)는 데생과 사진을 섞어놓은 듯한 이미지로 두 젊은이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용을 길들이는 모습을 사진 작업으로 창조한 〈Dragon〉이 6만 유로(약 8,300만 원)에 거래되었으며 데미안 허스트의 흰 새가 날개를 펴고 날고 있는 모습을 포름알데히드 액속에 박제시킨 〈The incomplete truth〉(2007)는 235만 파운드(약 40억 원)였다.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 사진작품은 45만 유로(약 6억 원)였으며,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조각작품은 50만 파운드(약 8억 6,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큰 규모의 거래가 오고 갔다.

## REVIEW 월드 아트마켓

앞으로 가격이 더욱 급상할 것이라 예상되는 작가들인 테오 메르시에Théo Mercier, 질 바르비에Gilles Barbier, 파브리스 아이버Fabrice Hyber, 왕두Wang Du 등의 작품 가격은 아직은 1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다양했다. 루이비통 전시장에서 열렸던 「터불런스(Turbulences)」전을 통해 다시 한 번 실력을 발휘했던 베네수엘라 작가 엘리야스 크레스핀Elias Crespin는 시네틱 아트를 주로 다루는 드니즈 르네Denise Ren 갤러리에서 전시해 미술과 같은 작품을 10만 유로에 판매했다. 강철로 제작한 가는 스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가는 선으로 연결되었고 그 선들은 하나씩 중앙 모터에 연결된 작은 모터로 이어져있으며 모든 스틱들의 신비로운 움직임이 프로그램화 되어있다.

한국 작가 양혜규의 작품은 한국의 국제갤러리와 상탈 크루셀 갤러리에서 동시에 전시되었으며 이우환의 작품 또한 마드리드의 엘비아 곤잘레스 갤러리에서 선보였다.

프랑스 라디오 국제방송국RFI(Radio France Internationale)에 따르면 그랑팔레 입구에 부스를 설치한 상탈 크루셀 갤러리는 미국 작가 웨이드 가이톤Wade Guyton의 거대한 모노크롬 작품 〈Untitled〉(2012)을 이미 뉴욕의 휘트니미술관에 15만 달러(약 1억 6,300만 원)에 판매했다. 벨기에의 로돌프 잔센Rodolphe Janssen 갤러리는 베티 톰킨스Betty Tompkins의 〈Kiss Painting〉(2012)을 소개했다. 런던의 데이비드 즈위너David Zwimer 갤러리는 아델 압데스메드Adel Abdemessed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리즈 작품을 선보였다. 아트 컨셉 갤러리Galerie Art concept는 마이클 블라지Michel Blazy의 나무로 만들어진 빗자루가 구운 흙이 담긴 화분에 심어진 작품을 1만 9,000유로(약 2,600만 원)에 판매했다. 대체로 2012년 「피악」에 전시된 작품들은 대부분 컬렉터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밝혔다.

올해 「피악」은 그야말로 규모가 거대해지고 더욱 흥미로웠으며 더욱 다양해졌지만 돌발적이거나 충격적인 작품은 적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폐어를 통해 대중을 쇼킹하게 했던 극단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성적인 작품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려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그랑팔레를 나오자마자 「아트 엘리제 아트페어」 입시 건물이 왼쪽에 보인다. 「피악」과 같은 기간에 맞추어 진행되어 「피악」을 찾은 발길은 자연스럽게 「엘리제 아트페어」로 가게 된다. 퍼스Peirce 갤러리의 「피악」이 그랑팔레가 아닌 아트 엘리제에 참여한 의도를 물어보니 “「피악」은 어떤 면에서 지나치게 개념 예술을 많이 다루거나 특히 컨템포러리 아트가 기준이되지만 「아트 엘리제」는 그보다 더욱 합리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접근 가능한 점을 우선 다르게 평가하였다”며 “외형적으로 거창한 것보다는 실리를 찾게 하는, 특히 회화 작품에 심려를 기울일 수 있는 수준 높은 「아트 엘리제」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특히 모던아트와 컨템포러리 아트가 조화롭게 전시된 점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아트 엘리제」가 끝나는 곳은 콩코드 광장과 만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킬리리 정원으로 들어서면 마크 쿨의 엄청나게 큰 소라 껍질이 수줍게 기다리고 있다. 이 작품 이외에도 장 벤자민 마느발Jean Benjamin Maneval의 반쯤 뒤집어진 조개로 만들어진 집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1997년 마지막으로 묵었던 리츠 호텔 앞 광장에는 좀 프렌자Jaume Plensa의 7m에 달하는 거인 조각상 〈Istanbul blues〉(2012)가 시간 속에 정지한 채 침묵하듯 변화한 파리의 중심지에서 도시인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랑팔레에서 세느강 쪽에 설치된 아름다운 알렉산더 3세 다리를 지나면 있는 앵발리

4 그랑팔레 전시전경 FIAC 2012 ©Marc Damage 5 「피악」 개막식 장면 Vue generale du Grand Palais. Vernissage ©Marc Damage Stand Annelly Juda Fine Art ©Marc Damage 6 이사벨 분츨 〈Transit, I〉 100×140cm huile sur bois 7 데이비드 호크니 〈Big Stone〉 Oil on canvas 1962 Annelly Juda Fine Art 8 카우즈 〈COMPANION(ORIGINAL FAKE)〉 Fiberglass and rubberized paint 2011 Photo: Dimitris Skliris—Courtesy Galerie Perrotin Représentée(e) par: Galerie Perrotin 9 마이클 블라지 〈Le Jardin sorgho〉 Balais 2012 Chaumont sur Loire, photo E.Sander Représentée(e) par: Art: Concept





6



7



8



9

REVIEW 월드 아트마켓



10



11

10 마크 퀸 <The Origin of the World(Cassia Madagascariensis) Indian Ocean, 310> 2012 ©Marc Damage Representé(e) par: Thaddaeus Ropac 11 줌 프렌자 <Istanbul Blues> 2011 ©Marc Damage Representé(e) par: Lelong 12 로버트 롱고 <Untitled(Ace)> Charcoal on mounted paper 2012 courtesy Galerie Thaddaeus Ropac, Paris-Salzburg Representé(e) par: Thaddaeus Ropac 13 타야이나 트루베 <Refolding> Concrete, bronze 2011 Courtesy Johann König, Berlin Representé(e) par: Johann König 14 올라프 브로이닝 <Smoke Bombs 2> Mounted C-print on 6mm sintra, framed 2011 Olaf Breuning Representé(e) par: Metro Pictures 15 제레미 델러 <Sacrilège> 2012의 설치전경 Courtesy Art: Concept, Paris – Glasgow International Festival et Mairie de Londres Representé(e) par: Art: Concept



12



13



14



15

드 광장에는 묘한 거대한 설치 작품이 있는데 이는 터너 프라이즈를 수여한 영국 작가 제레미 델러(Jeremy Deller)의 《Sacrilige(신성모독)》이 있다. 역사적으로 알려진 영국의 남서부의 스톤헨지의 거석의 모양에 바람을 넣어 부풀게 한 작품으로 특히 아이들에게 사랑 받았다. 역사적으로 신성한 장소가 마치 여름 바캉스를 떠나기 위한 기차역처럼 여유 있는 장소로 변환되는 순간이었다.

2012년 「피악」에 참여한 프랑스 갤러리들은 페어 첫날 초대전부터 부스마다 샵페인 파티를 열었다. 이는 2011년, 2012년 컨템포러리 미술 시장이 여전히 호황을 맞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정부가 미술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재산세에서 예술품 소유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외시키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미술 시장에서 파리 「피악」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굳히는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이 법은 프랑스에 130만 유로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5만 유로 이상의 가치의 작품을 소유하면 1년에 0.5%의 세금(250유로)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사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작품 평균 가격은 1만 유로이지만 미술품 중개인, 작가, 갤러리스트, 박물관, 경매 회사, 골동품점 등 미술 시장 관계자들은 문화부 장관 오렐리 프리페티(Aurilie Filippetti)를 선두로, 모두 이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

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종류의 연대 세금은 지금까지 영국, 벨기에, 미국 등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프랑스 미술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로 남을 수 있는 범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는 프랑스 예술 작품을 개인이 양도할 때 5,000유로 이상일 경우 5%의 세금(증빙서류가 없을 경우)이, 증빙서류 있을 경우는 12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제외(일반적으로 작품을 재판매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1%의 세금을 내야하나 2년 후부터는 매해 10%씩 면제되어 결국 12년이 되면 세금이 없어지게 된다)하는 경우와는 별개로 또 다른 성격의 세금이다. 하여튼 이번 결정으로 예술 관계자들은 한숨을 덜었다. 예술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에 깨달은 문화 선진국 프랑스가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자각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파리를 국제 시장에서 더욱 부각시키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내년의 「FIAC 2013」이 더욱 기대된다. ▲

PARKEun Ju

**Fiac 2012** 2012 「피악」  
Grand Palais:Avenue Winston Churchill 75008 Paris  
[www.fiac.com](http://www.fiac.com)